

地域社會에 公共圖書館을 심자 (上)

—對民奉仕의 重要性和 그 方法—

曹 尙 鉉

(春川市立圖書館長)

目	次
館 內 奉 仕	아이디어創案
館 外 奉 仕	運營의 妙
P. R.	

여기서 論議의 對象으로 하는 圖書館의 奉仕는 美國이나 어느 先進諸國의 圖書館奉仕가 아니고,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奉仕임을 前提로 합니다.

公共圖書館의 奉仕라는 問題는 여러 말 할것도 없이 地域社會發展에 直接 或은 間接의으로 寄與해서 住民 個個人의 生活이 向上發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특히 오늘날 圖書館의 機能을 總集約해 놓은 것의 全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近代國家의 發展을 云謂할 때 그 나라 產業에 根據를 둔다면 여기에 圖書館 奉仕는 인포메이션센터로서 어떻게 이런 時代의인 要求에 應할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問題點도 여기에는 包含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에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은 閱覽室의 冊床과 貸席만을 빌려주기 爲하여 存在하는, 다시 말해서 貸席을 業으로 하는 곳 같은 印象을 받아온 것이 숨길수 없는 事實입니다.

그것은 大體로 國民水準이나 말할 수 없이 적은 國民所得, 制度 그리고 豫算不足, 새로운 圖書館學의 導入이 늦었고, 專門職으로서의 人材의 不足, 當局이나 社會의 圖書館에 對한 沒認識 等等 圖書館發展을 阻害하는 要因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理由中에서도 公共圖書館이 貸席業같은 印象을 받게끔 된 直接의인 緣由는 ① 人口膨脹으로 인한 住宅難, ② 低劣한 平均 水準以下의 國民의 知識水準, 여기에 ③ 圖書館의 奉仕도 단지 利用者가 求하는 資料만을 閱覽에 供하는 單純奉仕에 그쳤다는데 基因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公共圖書館人이 생각해야 할 것은 위에서 말한 것 中에서 세번째로 指摘한 消極的인 圖書館

奉仕임은 두말할 餘地가 없습니다.

過去 우리나라의 圖書館은 保存本位·整理中心의 圖書館業務를 圖書館運營의 첫째인양 여겨 왔습니다. 保存·整理에 編重한 나머지 圖書館의 奉仕는 無視되었으며 그의 發展이란 期待할 수 없었고, 따라서 住民生活에 <어필>할 수 없는 圖書館으로 機能을 完全히 喪失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圖書館奉仕는 保存本位·整理中心에서 利用中心이라는 一大變化를 가져오고 있는 이 때에 우리 圖書館人의 깊은 反性和 研究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本人은 圖書館의 眞價를 決定하는 第一의 條件은 積極的인 奉仕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勿論 前述한 바와 같이 變化되어 가고 있는 圖書館學概念의 思潮는 先進諸國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現象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덮어놓고 精神的 國籍喪失者和 같이 外國의 圖書館만을 그대로 模倣하는 것은 아닙니다. 外國의 先進 圖書館學을 받아들여, 이를 取舍選擇해서 우리의 生理와 生活構造에 맞는 圖書館을 建設해야 함은 勿論입니다.

앞에서도 말했거니와 지금까지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이 主力을 둔 곳은 整理中心主義에 치우쳐 오다가 近年에 와서 參考·複寫·視聽覺等 諸種 業務가 增大하여 整理業務(間接奉仕)의 優位性이 차차 가려워지고 있음이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現代人의 生活構造가 機械的으로 돌아가고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달픈 生活 속에서 짊어지는 憂愁를 느끼는 現代人들이 閑暇하게 그 많은 文獻을 일일이 찾아 읽고 資料를 얻을사 이를 許容받지 못하는데 그 原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編目業務의 優位性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 反面에 圖書館의 直接 奉仕分野의 業務가 그만큼 強調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입니다.

20世紀 後半紀에 들어선 現代人의 生活條件은 옛 사람들이 想像도 못했을 程度로 너무나 複雜하고 너무나 貧困하고 너무나 變動이 많고 너무나 갖가지 誘惑(惡

에, 或은 正常이 못되는)이 많고 不安한 가운데 살아 가고 있는 것이 現代社會이기 때문에 生活에 拮据 있으면 現實에서의 逃避를 願望하고, 現在의 緊張에서 풀려 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 例로 郡이나 邑所在地까지 茶房·撞球場·劇場이 생기고 小都市에만 가도 빠나 카바레가 늘어만 가고 있어 生活人의 발걸음은 무엇에 빨려나 들듯, 그런 遊興場으로 밀려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暫間 생각해야 할 것은 當局이 勸奨 或은 育成시키려고 애쓰지도 않은 그 遊興場이 우리 살림形便에 날로 繁昌해 간다는 것은 (勿論 호비産業의 登場은 社會發展에 比例되는 것이긴 하지만) 올바른 意識을 忘却하고 살아가는 現代人의 要求에 基因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그와 같은 고달픈 生理를 지닌 生活人들에게 安靜을 주고 情緒를 불러 일으켜주고 참된 삶을 營爲하도록 이끌어주고, 貴重한 時間의 浪費를 덜어주고, 餘暇를 善用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가 하는데에 圖書館奉仕의 뜻은 그 次元을 달리하고 있으며, 오늘날 公共圖書館에 있어서 對民奉仕의 比重이 公共圖書館의 機能과 運營에 必須要件으로 重視되고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公共圖書館의 奉仕는 複雜·貧困·不安 그리고 갖가지 惡의 誘惑에 몸소 휘말려 들어만 가고 있는 生活人들에게 보다 積極的인 館內外奉仕를 展開하여 그런 破戒的인 生活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들을 일깨워서, 사이가 벌어져 있는 市民과 圖書館과의 距離를 좁혀서 公共圖書館이 그들을 도와주고 啓蒙한다는데 그 焦點을 맞추어 일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生活에 充滿하여 있는 生의 無意味에서 脫皮하는데 圖書館奉仕는 住民의 生活 속을 파고 들어가 積極的인 活動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勿論, 讀書指導서부터 情報源을 提供하고 閱覽者를 도와주는 奉仕도 여기에 除外된 것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또는 적어도 어떤 民族의 文化發展, 即 知識·藝術·信仰·道德·法律·習慣·科學技術 등 온갖 것의 複合體라고 하는 그 文化發展過程에 있어서 제아무리 훌륭한 學問이나 偉대한 藝術作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生活人에게 알려지지 않고 生活人의 要求와 아무런 關聯을 맺지 못한채 函卷의 冊속에 死藏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偉대한 學問으로서의 價値를 喪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로지 그와 같은 훌륭한 資料들을 社會意識에 質과 內容을 具體化시키고 提起된 問題點을 빠른 時間안에 解決해 주는 일을 맡은 곳이 圖書館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圖書館奉仕의 올바른 概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公共圖書館의 奉仕를 展開하는데 있어서의 問題는 市民生活에 全然 外面 當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이 어떤 方法으로 어떻게 奉仕를 해야지만 市民이 스스로 圖書館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틈틈이 圖書館을 찾지 않고는 못배기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어도 어떤 地域社會에 있어서 한箇의 公共圖書館이 市民生活에 必要不可缺의 것이 되기에는 圖書館의 積極的인 奉仕의 展開와, 同時에 市民自身이 圖書館의 奉仕를 옹기 받아 들여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即 一般 市民들로 하여금 圖書館奉仕에 對하여 共感과 呼應의 氣風이 없이는 成果를 걸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圖書館을 認識하고 그곳을 利用하는 即 圖書館이 地域社會에 뿌리박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決定權은 一般市民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平生 世上돼 돌아 가는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知識은 무엇하는 것이며 文化란 무엇 말라 비틀어진거나>는 式의 生活態度를 座右銘처럼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오�히려 잠꼬대 같은 말밖에는 안되겠지만 이런 住民일수록 그를 理解시키고 이끌어주어서, 애써 힘쓰고 있는 圖書館奉仕의 內容이 산울림처럼 그쳐 버리지 않도록 꾸준한 奉仕活動을 展開하여야 할 것입니다.

或者是 말하기를 <近代化作業은 官廳의 公文書와 農軍의 피와 땀이면 이룩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는 그러나 따지고 보면 近代化의 原動力은 近代化를 計劃할 수 있는 知識과 技術이 몇배 더 필요한 것입니다.

整理된 資料와 蒐集된 情報 속에 담겨진 온갖 知識과 技術을 온 國民이 모두 알고 認識하고 서로 協助하면서 힘을 모아 뒤편어진 文化를 開拓해 나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近代化는 보다 빠른 時間 안에 보다 健全하게 이룩된다는 것 即 知識의 基礎가 무엇보다도 必要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圖書館의 奉仕는 社會發展에 直接的으로 作用하는, 아기가 成長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어머니의 젖줄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公共圖書館의 奉仕는 1人的 百步前進보다는 百人的 一步前進을 爲하여 多樣한 活動을 展開해야 한다는 것을 前提코 해야 합니다.

그것은 一部의 利用者만을 爲하여 存在하는 것이 公共圖書館 本來의 機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館內 奉仕에서 館外로 그 奉仕活動은 넓고 깊게 市民生活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圖書館에 對한 認識이 아쉬운 우리나라의 境遇는 先進 여러나라의 公共圖書館보다도 多樣한 圖書館奉仕가 切實히 要求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오늘 새삼스럽게 公共圖書館의 奉仕問題를 이 자리에서 云云한다는 自體가 좀 씩스러운 感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本人이 이 問題를 다루려는 意圖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大部分의 生活人들은 自己自身에 對한 意識을 忘却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尺度대로 적당히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圖書館人의 境遇도 적당히 하루 하루를 別 發展도 없이 無意味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惰性的인 精神속에서 自覺症勢를 불러 일으키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 圖書館人들이 地域住民의 口味에 맞는, 그들의 食性이 顯하는 圖書館奉仕를 展開하고 그럼으로써 生애의 慾求를 갈망하는 市民(啓蒙)을 만들 것이냐 하는 問題에 對해서 圖書館의 奉仕는 그들의 案內役으로서 知識의 지팡이가 되어 주고, 건너갈 수 없는 냇가에 知識의 다리(橋)役割이 되어 無事히 건너가게 해주느냐 하는 前進만이 許容되는 社會發展에 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上述한바와 같이 重要的인 公共圖書館의 奉仕를 展開함에 있어 그 奉仕方法을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立場에서 檢討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圖書館뿐만 아니라 모든 分野에 있어서 서비스의 意味나 內容은 恒常 進步하고 發展해야만 한다. 서비스란 時代感覺에 그 質과 內容이 附合되지 않으면 오히려 서비스를 아니함만 같지 못한 結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은 우리의 住民生活에 適應할 수 있고 그들이 要求하는, 나아가서는 그들을 漸次的으로 啓導할 수 있는 그런 奉仕를 해야지 民族性이 다르고 生活樣式이 다른뿐더러 國民水準의 差異가 있는데도 外國圖書館의 奉仕方式을 直輸入해서 그때로 實施한다면 어떤 結果가 招來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冊이나 몇千卷쯤 쌓아 놓고 學生들(成人은 잘 必要도 없고)에게 자리(閱覽席)나 빌려주는 것>이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全部인 것처럼 認識되고 있는 우리의 處地이고 보면 우리가 빌려야 할 圖書館奉仕의 方法은 그리 쉽게 生覺해 내기조차 힘든 形便이며 外國의 것을 그대로 模倣해서도 안된다는 것은 自明한 일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近視眼的인 奉仕方法도 勿論 버려야 한다.

여기에 더구나 圖書館의 서비스는 商店이나 어떤 企業體에서의 自己利益을 바라고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의 利益自體의 內容이 圖書館이 아닌 利用者에게 주는 서비스라는데 奉仕活動展開에 힘이 들뿐만 아니라, 좋은 奉仕方法을 創案해서 奉仕에 臨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充實한 內容의 奉仕를 堅持하기 힘들며 持續性을 維持하기 또한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圖書館을 利用하고자 하는 住民에게 圖書館職員이 배푸는 조고만 親切이나 協助는 永遠한 圖書館의 顧客을 만들어 發展할 수 있는 地域社會를 建設하는데 基本的인 힘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圖書館의 奉仕는 圖書館 問題中에서도 가장 重要하게 다루어져야 할 問題인 것이다.

經營學의 ABC같은 예기지만 商店의 店員이 愛嬌 있는 人事·商品提示·商品說明·販賣對話를 잘 해야 物件을 보다 많이 팔수 있듯이 圖書館施設의 擴充도 重要的인 問題이나 아무리 施設이 擴充되고 資料가 빠짐 없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웃음을 잃은 職員, 消極的인 態度로 業務에 臨하는 차거운 零團氣의 奉仕가 繼續되면 지금까지나마도 圖書館을 찾던 市民은 그 圖書館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永永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서비스 없는 現代 圖書館이란 存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圖書館의 서비스는 오늘날 圖書館發展에 決定的인 條件이 되고 있다 하겠다.

前記한 것은 勿論 圖書館奉仕의 基本的인 問題이지만 또는 圖書館職員은 먼저 神經質의이고 官僚的인 態度부터 止揚하여야 하겠다고 본다.

그러면 奉仕方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만 充實한 奉仕를 館內外로 展開할 수 있겠느냐? 的中할 수 있는 奉仕方法은 果然 무엇일까요?

百貨店の 經營者는 말한다. <단팔손님을 노치지 말라>고. 그것은 단팔손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商店經營에 있어서 鐵則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圖書館에 있어서도 반드시 利用者 한사람 만을 相對로 奉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찾아온 住民에게 좋지 않은 印象을 주어서 다시는 圖書館을 찾아오지 않게 해서는 안된다. 圖書館에 對한 나쁜 印象을 받은 住民은 그가 아닌 그의 친구들에게 圖書館에 對한 나쁜 批評을 늘어 놓게 되면 한사람의 利用者를 잃는다는데 앞서 圖書館을 利用해야할 많은 住民을 한꺼번에 잃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館內奉仕와 館外奉仕를 나누어 몇가지 奉仕方法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 館內奉仕

圖書館을 찾아온 利用者를 相對로 하는 奉仕, 即 利用者들이 圖書館을 利用하는데 있어서 入館해 가지고 退館할 때까지 不便을 느끼지 않고 必要로 하는 資料나 情報을 얻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奉仕이다. 또한 여기에는 住民이 圖書館을 찾도록 心理를 誘發시켜주는 일의 一部와 求하는 情報나 資料를 손쉽게 빠른 시간 안에 찾도록 도와 주는 奉仕가 모두 包含된다고 본다.

(1) 無料開館

먼저 公共圖書館의 閱覽料 徵收는 圖書館의 奉仕拋棄를 意味한다고 해서 잘못된 말일까. 이는 地域住民과의 奉仕할 수 있는 길을 自進해서 가로막는 障害物로서, 公共圖書館의 入館料徵收制度가 하루 速히 廢止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이 받고 있는 入館料는 3원內外로서 몇 個館이 無料開館하고 있을 뿐이다. 3원이란 “코푼은 돈”같은 것이지만 따지고 보면 入館料를 받음으로 해서 住民들과의 距離感을 만들고 利用者들에게 뭔가 부담감을 주고 있음을 經驗을 통해서 알 수 있다.

入館料를 없애고 구두담기나 지재꾼이라도 마음놓고 圖書館을 自由로 利用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긴 說明이 더 必要치 않는 것으로 본다.

(2) 迅速한 資料貸出

每事에 기다리는것처럼 지루하고 氣分傷하는 일 없었다. 마찬가지로 1권의 冊을 빌리기 爲하여 複雜한 手續을 밟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利用者의 立場에서 본다면 圖書館의 좋은 印象을 남겨줄 수 없는 일이다.

勿論 資料를 보다 迅速하게 提供하기 爲하여서는 <에스카레이터> <리프트> <컨베이어> 같은 施設이 있어야 하고 圖書館請求書를 送付할 수 있는 <뉴우메릭 튜브>같은 施設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나 우리의 形便은 마치 꿈같은 예기다.

또한 圖書館에서도 全然 아무런 手續도 없이 그냥 圖書를 貸出해 주었으면 오죽이나 마음 便한 일일까마는 圖書의 紛失·盜難을 事前에 防止하고 貸出業務의 徹底를 期하기 爲한 方法으로 手續節次를 밝게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筆者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現在의 貸出手續을 簡素化하여 迅速한 貸出을 해서 利用者에게 서비스 해 보자는 것이다.

예컨대 貸出臺는 하나 밖에 없는데 書庫의 構造는 1層부터 3層까지 되어 있고 貸出業務에 必要한 施設은 全혀 되어 있지 않아 自然히 申請한 圖書가 利用者 손에까지 가려면 長時間이 所要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에는 5명이나 10名の 圖書閱覽請求書를 기다려 함께 모아 가지고 書庫에 들어가 冊을 찾아 貸出할 것이 아니라 1권의 圖書라도 申請即時 貸出하여 준다는 閱覽司書의 親切과 協助心만 있다면 利用者의 氣分傷하는 일은 어느程度 없앨 수 있을 것이요, 貸出臺帳記入도 重要한 事項만 몇가지 記錄하고 即時 貸出해 준다면 많은 時間을 短縮시킬 수 있다고 본다.

外國에서는 보다 迅速한 貸出을 爲해 <로울러·스케이트>까지 書庫에 登場시키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問題이다.

(3) 新刊圖書購入 및 整理業務에 迅速을 期해 奉仕한다.

흔히 利用者가 放送의 新刊案內나 新聞의 書評을 통하여 이미 몇週前에 圖書가 出版됐음을 알고 圖書館을 찾아 와 보면 아직도 整理中이라는 때는 失望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勿論 整理部署의 人力不足이나 其他 與件이 갖지 않아 整理業務가 遲延되는 境遇가 없는 것은 아니다. 出版物에 對한 情報는 利用者들의 關心이 더 크다는 것을 담당司書는 認識하고 圖書館에서 入手하지 못한 資料라면 몰라도 (이 경우라면 도서 구입예산을 감안하여 次期 收書時에 備置되도록 努力할 것이고) 一旦 購入된 圖書라면 迅速히 整理하여 閱覽者가 必要로 하는 時間에 利用할 수 있도록 奉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그마한 奉仕가 大端한 일 같이 얹게 여길분이 있을 것이나 利用者의 立場에서 본다면 배가 몹시 고풍 때 口味에 맞는 飲食을 대하듯 크게 滿足해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開架制 實施

利用者로 하여금 自由接架를 하도록 함으로써 必要한 資料를 必要로 하는 사람이 必要한 時間에 쉽고 빠르게 찾아 利用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方法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形便으로는 좀 부끄러운 일이나 藏書管理上 實施하기 힘든 일이기도 하다.

예를 든다면 新聞架의 경우, 사진이나 記事를 오려가서 新聞걸이에 걸려있는 新聞은 너마쪽같이 되고 雜誌架의 雜誌도 집에 한권씩 가지고 가라고 내놓은 것으로 아는것이 利用者들의 常識으로 되어 있으니 말이다. 3年前의 일로서 50種이 넘는 雜誌를 雜誌架에 걸어 自由롭게 볼 수 있도록 내놓았더니 不過 1時間이 좀 넘을까 하는 時間 사이에 5권의 雜誌만이 끼워 있고 雜誌架는 텅비어 있기에 역시 定期刊行物利用도가 높구나 하고 감탄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問題는 그것이 아니었다. 閱覽室을 한바퀴 돌아봤더니 閱覽者가 읽고 있는 것은 겨우 3卷뿐, 그날밤 9時 圖書館門을 닫을때까지 나머지 41卷의 雜誌는 雜誌架에 끼워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 그런데 하물며 一般圖書 開架制閱覽이란 그 結果를 可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國民水準에서는 아직 時期尙早같은 奉仕方法이겠지만 그러나 全國公共圖書館은 研究해 볼 問題이다.

여기서 한가지, 萬一 閉架式의 경우일지라도 地域社會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그 特殊分野의 資料만이라도 利用者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閱覽室에 따로 備置하여 利用者에게 便宜를 주는 奉仕. 그리고 新着圖書(新刊)만이라도 1週日程度 이와 같은 方法으로 開架制를 實施하여, 利用者로 하여금 閉架制에서 開架制

로 實施함에 있어 利用方法에 對한 그들의 習慣을 차차 轉換시키는 일이 先決問題라고 본다.

(5) 雰圍氣 造成

圖書館의 雰圍氣造成은 非但 讀書시즌에 拘礙됨이 없이 平素에 恒常 圖書館 利用者의 心理를 安靜시켜주고 讀書意慾을 북돋아 준다는 點에서 重要하다.

이 雰圍氣造成은 室內의 裝置와 用品의 알맞은 配置로 圖書館에 對한 印象과 特性을 살리고 利用者들로부터 安靜感을 주며 圖書館에 對한 一種의 魅力을 갖게 하는 奉仕, 內部壁의 全體의 으로 알맞은 配色, 裝置의 質感, 照明等 平面的 立體的으로 새로운 感覺을 創造해서 圖書館을 찾아온 住民들에게 어필하는 雰圍氣를 造成한다면 보다 많은 利用者를 吸收할수 있고 閱覽者들이 즐겁게 圖書館을 利用하도록 하는 無形의 奉仕方法이다.

또한 커틴色·花粉·名畫展示, 이외에도 북·재킷을 가지고 新着圖書展示板을 보기 좋게 만든다거나 하여 圖書館에 對한 아늑하고 뭔가 高尚하고 忠實感같은 것을 느끼도록 해준다면 이와같은 獨特한 센스에 滿足해하고, 그래서 이와같은 분위기에 이끌리는 利用者의 心理를 發見하게 된다.

例컨대 마치 百貨店의 華麗한 쇼우윈도우, 방의 裝飾, 아름다운 마네킹이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잠듯이—반드시 物件을 꼭 사러 집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번쯤은 지나치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이 圖書館의 品位있는 雰圍氣는 圖書館 利用者나 잠깐 지나다가 들린 住民들의 마음을 誘惑할 것이다.

圖書館에 冊이 있고, 工夫를 하는 곳인 줄은 現代文明圈 밖에서 산다고 해도 過言이 아닌 山間僻地의 草童도 이만한 것쯤은 알고 있다.

筆者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쇼우윈도우의 마음에 끌리듯, 利用者가 直接 보고 느끼고, 스스로 圖書館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고, 오늘의 圖書館이 市民生活속을 파고 들어 가려면 大端할것 같이 여겨지지 않은 이런 조그만 일에도 神經을 써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圖書館의 雰圍氣는 百貨店의 그것처럼 華麗해서는 안된다.

圖書館을 찾는 市民의 對象은 쇼핑을 하러나온 그런 市民層이 아니라 적어도 知識人이라는 것을 恒常 念頭에 두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 現業을 담당하고 있는 司書(參考·閱覽·案内等)의 服裝·態度·부드럽고 親密感이 넘치는 應答이 곁들인다면 밝고 明朗한 奉仕를 能率의 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圖書館奉仕의 基本條件이 되는 것이다.

(6) 資料擴充

圖書館의 施設도 그렇겠지만 무엇보다도 利用者가 必要로 하는 모든 資料를 갖추워 놓고 奉仕한다는 것은 가장 重要한 일이며, 또한 이는 豫算이 뒤따르게 되므로 매우 힘든 일의 하나이다.

더우기 오늘날 公共圖書館의 資料購入費를 따져 본다면 資料擴充 云云은 空念佛에 不過한 얘기이다. 그래서 이 問題에 對하여는 덜어두기로 하고 資料貧困을 打開하는 한 方法으로서 圖書館間에 相互圖書貸借業務를 展開하여 藏書擴充問題를 카버, 利用者에게 奉仕해 보자는 것이다.

即 自館에 收藏되어 있지 않는 資料를 그 地域社會 內에 있는 各級圖書館에서, 나아가서는 다른 地域의 圖書館에 依賴하여 最大限으로 活用한다면 어느 程度 解決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生覺한다. 勿論 複雜한 手續에 依한 同業務는 쉬운 일은 아니다. 于先 圖書館間相互圖書貸借業務를 始作하려면 各館 管理者의 充分한 理解下에 檢討·計劃後 相互圖書貸借協定을 締結해 놓고 이에 必要한 書式이나 樣式을 統一, 作成印刷하고 實施하여야 한다. 注意해야 할 것은 貸借圖書에 對한 反納期日의 嚴守, 汚損·紛失 資料에 對한 補修·辨償反納, 담당職員에의 誠意있는 協助心 等이다.

이 相互圖書貸借業務에 所要되는 經費는 勿論 利用者負擔으로 貸借 圖書館이 責任져야 하며, 이 業務에는 現金이 必要치 않으므로 郵票를 利用해야 한다는 것을 애당초 協定文에 明示하는 것이 利用者로 하여금 圖書館奉仕의 뚜렷한 觀念을 줄수 있다고 본다.

圖書館間相互圖書貸借 業務는 今年부터라도 公共圖書館이 먼저 展開하여 圖書館奉仕의 比重을 높여야 할 問題라고 보아 特히 強調한다.

(7) 藏書構成의 再檢討

地域의 事情, 特殊性을 깊이 調査分析하고 現在 所藏되어 있는 藏書의 利用度를 參酌하여 購入圖書의 選擇을 地域事情이나 特殊性을 充分히 살릴수 있도록 藏書構成의 새로운 方向을 設定, 圖書館資料構成 自體가 地域社會 開發에 밑바침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現在 公共圖書館의 機能이 그럴뿐더러 아무리 貴重하고 값비싼 文獻이라 하더라도 그 貴중한 資料의 內容이 한두 사람에게만 利用될뿐 그 地域事情에 비추어 큰 구실을 못할 것이라면 얼마 안되는 圖書購入費를 有効적절히—果然 읽힐수 있는 頻度가 많은 다른 分野 即 地域住民이 찾는 그런 分野의 資料를 보다 많이 重點의 으로 選擇購入한다면 그 地域의 特殊性을 살릴 수 있을 뿐더러 圖書館의 特色을 살려 한 分野만이라도 뚜렷한 奉仕를 할수 있을 것이다.

이 問題를 提起하는 것은 요즘 政府에서도 各 道나 地域單位로 特殊產業을 育成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點

과도 相符되는 것으로 公共圖書館管理者는 이 點에 깊은 研究가 必要하다고 본다.

(8) 레퍼런스 서비스에 重點을 두자.

오늘날 圖書館의 參考奉仕의 位置는 圖書館의 機能을 左右할만큼 重要視되고 있으며 또한 매우 多樣業務인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複雜多端한 生活을 해야만 하는 現代人들이 마치 洪水몰마냥 쏟아져 나오는 各樣各색의 그 많은 各樣 資料를 일일이 찾아서 閑暇하게, 그것을 全部 읽고 必要한 情報을 얻을만큼의 時間을 갖출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參考事務는 特別히 強調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Documentation活動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參考業務는 參考質疑方法과 資料利用指導, 質疑에 對한 回答, 그리고 書誌解題의 作成, 包括적이고 正確한 인포메이션의 準備, 파일의 整備, 抄錄作成, 特別한 資料의 展示等 參考奉仕의 內容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質問과 回答 사이에 있어서 質疑者·要求事項·參考司書·情報源, 이 네가지로 이루어지는 이 參考奉仕는 參考司書의 조고만 不注意로 인한 回答의 미스, 非協助의 態度(能動的이 못되는), 積極性的의 缺如, 이런 것이 止揚되지 않고서는 圓滿한 奉仕를 이룩하기 힘든 것이다.

勿論 圖書館의 目錄도 資料를 찾아내는 열쇠이긴 하지만 利用者와의 關係에서 볼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間接的인 奉仕形態이지 對人關係에서 이루어지는 直接奉仕는 이 參考業務인 것이다.

口頭·書信 그리고 電話로 걸려오는 質疑에 일일이 正確한 回答을 주어야 하고 때로는 該當 資料가 所藏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專門研究機關에 間疑하여서까지 回答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다못해 적은 일로는 어려운 漢字, 列車時間 및 料金問疑의 應答에서부터 各種 인포메이션에 이르기까지 取扱, 親切히 應答해야 하는 參考奉仕는 知識의 流通·傳達의 根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圖書館奉仕中에서도 參考奉仕의 比重은 높은 것이며 또한 有能한 參考司書가 時急히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이 參考奉仕는 他館種 보다도 公共圖書館이 活潑히 展開하여 地域住民의 <궁금症>을 풀어준다, 利用者들의 知識의 열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이 參考室에 所藏되어 있는 永久保存해야 할 貴重資料(特別히 鄉土資料)도 漸次 複寫하는 方向으로 이끌어 複本을 만들어 禁貸出圖書를 解消한다면 보다 큰 서비스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次號에 繼續)

(22面에서 繼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勤務評定은 사람의 能力(努力), 勤務成績을 評價한다. 이에 依하여 勤務者들이 擔當할 職務가 決定되며, 職務의 評價는 職務分析에 依해서 決定된다. 따라서 賃金은 職務評價에 依한 職務의 價値와 勤務評定에 依한 能率이 結合되어 決定되는 것이다.

圖書館 司書職에 있어서도 먼저 司書에게 주어질 職務에 對해서 分析과 評價가 行해져야 하며 職務評價가 行해져서 그 職務에 適合한 司書를 配置함으로써 職務의 能率을 올리리라고 생각한다. 만일 職務評價가 되어 있지 않으면 勤務評定時에 人事에 對한 評價 뿐만 아니라 職務의 價値에 對한 評價가 多少라도 加해져야만 된다고 보겠다.

勤務評定에 包含된 要素는 一定치 않으며 職務에 따라 相異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所定의 職務를 遂行하는 데는 어떠한 要素들이 要求되는가 그것을 遂行할 能力은 如何한가? 그 職務는 如何히 遂行하였는가? 이다.

職務評價의 要素는 하나의 職務와 다른 職務와의 關

係이며 이를 通하여 그 組織體와의 關係가 評價된다. 換言하면 勤務評定은 사람과 職務와의 關係이고 職務評價는 職務와 職務와의 相對的 價値이다.

이와 같이 兩者間에는 若干의 差異가 있다고 하겠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類似性이 많다고 보겠다. 이러한 理由에 依하여 사람의 價値에만 依存하여 直接 賃金を 決定할 可能性도 생긴다.

그러나 人事配置가 適當하지 않으면 사람과 職務의 價値가 一致하지 않는다.

能力이 있는 사람은 그 能力에 相應할 職務에 配置하지 않으면 그의 能力을 發揮하지 못할 것이며 그 사람에게는 隱然中에 不滿이 생기게 된다. 反對로 그 사람 能力에 맞게 職務를 맡긴다면 能率面으로 보아 損失을 招來하는 것 보다 보다 좋은 結果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같이 사람의 能力과 職務의 價値는 一致하여야 하며 이런 점에서 勤務評定은 職務評價와 더불어 人事管理上 人事配置를 보다 効果的으로 運營하는 데 必要한 것이며 緊密한 關係를 持續하여야 할 것이다.

(次號에 繼續)